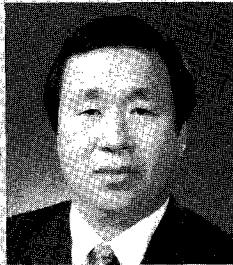


# '98 하반기 경제전망과 축산물 소비량 변화



박종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농학박사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하에 맞이한 불황의 터널은 예상보다 길고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금년도에 벌써 세 번 씩이나 '98~'99년 경제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극심한 내수부진과 실업문제

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엔화가치의 하락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우려, 인도네시아의 실질적인 채무불이행에 이어 러시아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 등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국내의 금융과 외환시장이 교란되고 수출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예측하면서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내년부터는 2~3%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기습적인 게릴라식 홍수피해는 이러한 기대마저 저버리게 하고 있다.

경제전망치가 또다시 수정되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인 3/4분기와 4/4분기에는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어 경기하락세와 내수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IMF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소비와 투자위축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금융기관을 필두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증가, 실질소득의 감소, 부도위험 증가와 불확실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근로자의 가계소득 감소로 연계되며 근로자의 소득감소는 소비부진으로 순환되는 현상, 즉 “소비부진 →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 가계소득의 감소 → 소비부진의 심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현상은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

이 발표한 가계소비의 감소 원인과 특징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가계소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가계소비의 감소가 소득감소를 훨씬 앞지르는 소비의 이상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1/4분기중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8%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10.5%나 감소되었다는 한국은행이 국민총생산(GNP)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한다.

둘째는 소득이 작은 계층의 소비지출이 상위 계층의 소비지출보다 훨씬 크게 위축되는 현상, 즉 중산층의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를 주도했던 중산층에서 경제적 지위가 추락한 하위 소비계층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적인 소비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탄력성이 높은 상품의 소비위축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경제상황의 불안감으로 인해 초 절약형 소비행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1/4분기중 소득이 3.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오히려 9.5%나 증가한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IMF와 합의한 고금리체제가 지속되는한 이러한 이상 소비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국민 모두가 감소한 소비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득 감소를 훨씬 상회하는 이상한 소비감소는 실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비위축현상은 축산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축산물은 대체로 중산층의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식품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붕괴는 곧 소득탄력성이 높은 축산물의 절대적인 소비침체로 연계되기 마련이다.

최근 축산물 가운데에서도 소득탄력성이 높은 우유와 쇠고기, 특수란 등의 소위 고급 축산물의 소비가 더욱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는 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어찌보면 IMF한파로 인해 하루아침에 10,000불의 소득수준이 5,000불의 소득수준으로 추락하였으니 축산물의 소비량도 국민소득

5,000불 수준이었던 1990년도의 수준으로 폭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표1은 국민 1인당 소득이 5,883불이었던 1990년도와 9,511불이었던 1997년도의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표2는 연도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1.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 (단위 : kg)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1990	4.1(52.0)	11.7(76.5)	4.0(65.6)	9.2(88.5)	43.8(82.2)
1997	7.9	15.3	6.1	10.4	53.3

주 : ( ) 내는 1997년도 소비량에 대한 1990년도의 소비 비율임.

표1에서 살펴보면 1990년도의 축산물 소비량은 1997년도의 소비량에 비해 품목에 따라 적게는 52.0%에서 많게는 88.5%까지 낮은 수준이다.

1997년도의 소비량에 비해 1990년도의 소비량은 쇠고기는 52.0%, 돼지고기는 76.5%, 닭고기는 65.6%, 계란은 88.5% 그리고 우유는 82.2% 수준이다.

표2. 가축의 사육두수 (단위 : 천두(수))

구분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1990. 12	1,622	4,528	26,935	42,430	504
1997. 12	2,735 (168.6)	7,098 (156.8)	34,427 (127.8)	48,190 (113.6)	544 (107.9)
1998. 3	2,762 (170.3)	7,441 (164.3)	32,781 (121.7)	47,114 (111.0)	568 (112.7)

주 : ( ) 내는 1990년도의 사육두수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육두수 비율임.

그런데 표2에서 살펴보면 가축의 사육두수는 IMF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와 산란계 등 소가축은 다소

**소득과 소비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생산은 줄지 않았으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전개되지 않는한  
축산물의 소비는 더욱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감소하였으나 생산이 경직적인 대가축의 경우는 IMF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금년 3월에도 사육두수가 증가되었다.

축산물의 수요는 급속히 감소하는 데 공급량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과 축산물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IMF한파가 시작되면서 한우·우유·돼지·닭·계란의 산지값이 턱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제원칙에 기인된다. 소득과 소비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생산은 줄지 않았으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전개되지 않는한 축산물의 소비는 더욱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축산물 중에서도 닭고기나 계란 그리고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나 우유의 소비위축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고 동일한 축산물 중에서도 고급화된 가능성 제품의 소비위축이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축산물의 소비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현재의 소비형태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되 생산비와 물류비를 줄여서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설령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추구하더라도 생산물의 차별화를 이유로 값을 지나치게 높여서는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인삼란, 요드란, 청정란, 무공해란, 무약란 등 차별화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더라도 그러한 차별화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가축의 산지값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유통구조하에서 소비가 촉진될 수 없다.

축산물의 산지와 소비자 값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확대설치, 대규모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육성·확대, 부분육거래 확대, 철저한 등급화와 냉장세계(cold chain system)실시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가차원에서 아무리 값싸고 질이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거품이 많다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셋째는 소비촉진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양축가들은 생산만하면 팔려나간다는 먹거리 부족시대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야 한다.

동일한 소득이나 가격수준에서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소비촉진활동이다. 소비홍보활동도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양축가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특정 상표의 축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축산물 자체의 소비홍보가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하고 개방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을 이해당사자 스스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양계산물은 양계농가가, 우유는 낙농가가, 돼지고기는 양돈농가가 담당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착안되어 시도되는 제도가 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이다.

축산자조금제도는 개별 양축농가가 자기가 생산·출하하는 축산물의 양에 따라 일정액씩 출연하여 해당 축산물에 대해 공동으로 소비촉진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계협회와 양돈협회가 그 회원을 대상으로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무임편승자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축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은 소모적 경비가 아닌 생산적인 투자이다. 수요가 없는 생산이 있을 수 없으며 소비확대가 전개되지 않는 생산증가는 가격폭락을 자초할 뿐이다.

IMF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일 기미가 없다. 우리 축산업이 IMF의 긴 터널을 슬기롭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양축가 스스로가 축산물의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추가적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양계**